

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중앙아시아3국** 천산산맥 실크로드 9일  
 초특가 4/20 출발 298만원 5/4,5/18 출발 318만원

## 카드업계 “엄지족 쇼퍼를 잡아라!”

### 대세 ‘온라인 쇼핑’ 제휴·특화 경쟁

지난해 거래액 78조원...집계 이래 최대 롯데 이베이 카드...KB, 11번가 특화 상품 현대카드, 온라인몰 사용 할인 혜택 도입



카드업계가 온라인(모바일)쇼핑 특화 카드 출시에 분주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쇼핑을 즐기는 일명 ‘엄지족 쇼퍼’가 증가하면서 모바일쇼핑이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78조2273억원을 기록했다. 이렇듯 온라인쇼핑 비중이 커지는 카드사들이 온라인쇼핑과 다양



‘e플래티넘 롯데카드’를 소개하고 있는 롯데카드와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들(왼쪽), ‘현대카드X 연세할인’ 프로그램. ‘엄지족 쇼퍼’를 유치하기 위한 카드업계의 온라인쇼핑 특화 카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카드·현대카드

한 제휴와 할인을 통해 특화된 카드를 내놓으면서 ‘엄지족 쇼퍼’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말 이베이(G마켓·옥션) 특화 카드인 ‘e플래티넘 롯데카드’를 출시했다. G마켓, 옥션, G9 등 이베이코리아의 간편

G마켓, 11번가와 제휴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5일 11번가에서 사용 시 결제액의 11%가 오케이캐쉬백 포인트로 쌓이는 ‘11페이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11페이’에 카드 등록 후 이용하면 된다. KB국민카드 역시 이에 앞서 1월에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에서 결제 시 최대 2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KB국민 품쇼핑 알파카드’를 내놓았다.

현대카드는 주요 온라인 사용처에서 X카드 사용 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X 연세할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매일 1회 온라인쇼핑몰 중 한 곳을 엄선했을 때 결제 시 1일 최대 3만원까지 50% 청구할인이 가능한 것이 매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정하고 최적화된 할인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5일

코스피지수	2375.06	↓	-27.10
코스닥지수	845.00	↓	-15.23
달러/원	2만042.09	↓	-139.55
중상하이 종합	3256.93	↑	+2.4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9	↑	+0.02
환율 (원·달러)	1082.80	↓	-0.20
국내금값 (원/그램)	4만6154.88	↑	+435.46

### 오늘의 얼굴

#### 손경식 회장, “노사정 대화 성과 기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7대 회장이 5일 공식 취임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총이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직 당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약속하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이 일부 대기업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의식,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총은 2월27일 손경식 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공식추대했다. 경총 회장 임기는 2년이다.

### 비즈 TALK TALK

- “2021년 TV 10대 중 1대는 올레드TV가 될 것” (권봉석 LG전자 HBS사업본부장(사장), 2018년 LG전자 새 TV 발표회에서 2021년 TV 시장이 연간 1억대를 넘고, 이중 10%는 올레드TV가 커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 “이건희 차명계좌 현재가치로는 2365억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27개의 자산은 61억8000만원으로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라며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365억원에 달한다며)

## 휴대폰 약정 만료 전 해지, 위약금 폭탄 사라진다

SKT 할인반환금 최초 전면 개편 발표 무약정 고객 요금납부 가능 포인트 받아 할인반환금 유예...잔여기간 상관없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약정 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SK텔레콤은 재약정을 하면 할인반환금(선택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유예하는 등을 골자로 한 약정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플랜에 가입하면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월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의 경우 36개월간 총32만4000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



이동통신 업계 1위 기업인 SK텔레콤이 약정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주고,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는 등의 약정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지는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엔 0원이 된다. 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뒤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기존엔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LG유플러스가 1월 도입한 재약정 시 할인

반환금 유예 제도도 실시한다.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SK텔레콤은 약정제도 개편과 함께 최저요금제 제안 시스템도 도입했다. 향후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이 보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3월에 이동통신 고객 서비스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SK텔레콤의 약정제도 개편에 대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업계 1위 기업이 고객 혜택을 늘리는 경쟁에 불을 지폈다는 점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볼 소식은 그녀의 신발에서...”

LF 질바이질스튜어트 새 모델로 배우 조보아가 발탁됐다. 회사 측은 “건강미, 우아함, 귀여움 등 조보아의 팔색조 이미지와 스니커즈, 로퍼, 샌들 등 질바이질스튜어트의 다변화된 제품 라인업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볼 화보에서 조보아는 편한 착화감의 스니커즈와 로퍼 등 활동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슈즈 제품군을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LF



## 아우디, 제네바 모터쇼서 신형 A6 공개

###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첨단 기술 적용

아우디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대표 중형 세단인 A6 8세대(사진) 모델을 공개한다.

8세대 아우디 A6의 큰 특징은 모든 엔진에 적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다. 속도 55~160km/h에서는 엔진이 정지된 상태로 주행하는 타력주행(coasting)이 가능하다. 실제 주행에서 이 기술을 통해 100킬로미터 당 최대 0.7리터까지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했다. 차를 자동으로 주차공간이나 차고에 넣고 뺄 수 있게 도와주는 파킹 파일럿과 개러지 파일럿 기능이

장착된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의 마이 아우디(myAudi) 앱을 사용해 주차와 출차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실내 공간도 키웠다. 앞 좌석과 뒷좌석의 헤드룸과 스탠딩룸을 늘렸고, 특히 뒷좌석 레그룸의 경우 경쟁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트렁크도 쉽게 열 수 있다.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간단한 발 동작만 하면 전등으로 열린다.

주행 특성에서는 서스펜션을 개선해 더욱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형 아우디 A6는 네카줄름 조립 라인에서 제조하며 6월 독일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기본 가격은 A6 세단 50 TD 기준 5만8050유로(약 677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골든블루, 8년 3개월 만에 누적판매 3000만병 돌파

(쉬골든블루는 자사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사진)의 누적 판매량이 2월 27일 기준으로 3000만병(450ml)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9년 출시한 ‘골든블루’는 2015년 3월에 판매 1000만병을 돌파하고 2016년 10월에 2000만병을 넘었다. 그리고 이번에 8년3개월 만에 3000만병을 돌파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골든블루’의 인기 비결은 차별화 된 도수와 맛에 있다.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으로 블렌딩했고 도수가 36.5도로 낮아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 시장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쉬골든블루 김동욱 대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고려하여 개발된 제품이기에 매년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LG전자 2018년 TV 신제품 공개



LG전자는 5일 서울시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2018년 TV(사진)를 공개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TV 10개 모델을 국내 출시한다. 특히 가격을 지난해보다 20% 정도 낮춰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5인치 300만~360만원, 65인치는 520만~1100만원, 77인치는 1700만~2400만원이다. 벽과 밀착하는 웨일퍼 디자인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에 스탠드형을 추가하고, 초대형 77인치 올레드TV도 1000만원대 가격에 내놓는다. 패널 위에 극미세 분자를 덧입혀 더 많은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노셀 기술을 ‘슈퍼 울트라HD TV’도 선보인다. 나노셀을 적용한 슈퍼 울트라HD TV 가격은 55인치 210만~260만원, 65인치 350만~390만원이다. 한편 LG전자는 TV 신제품에 인공지능(AI) 플랫폼 ‘딤썹썹’과 AI 화질엔진 ‘알파9’ 등도 적용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 데이터 경제

#### 스타일러·건조기, 올해 세탁기 매출 넘어설듯

이마트에 따르면 스타일러와 건조기가 지난해 세탁기를 포함한 전체 세탁기전 매출 중 31.4%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매출 비중이 46.6% 포인트 증가한 46%까지 상승했다. 특히 2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0% 증가해 15% 증가에 미친 세탁기 매출을 올해 안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스타일러와 건조기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이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빨래도 안심하고 널어 놓을 수 없게 되자 건조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었다. 야외활동 시 입었던 의류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스타일러 구매도 늘었다.

